

유산기부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 유산기부 안내서



▲ 안내서 신청하기

유산 기부는 평생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준 자연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변화를 이어가는 길입니다. 유산기부 안내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아래 방법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웹사이트: <https://www.greenpeace.org/korea/legacy>

✉ 신청 이메일: philanthropy.kr@greenpeace.org

☎ 신청 전화: 02-6952-6735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그린피스 콘텐츠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후원자님께 다양한 환경 이슈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더 나은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 수 있도록,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추첨을 통해 총 10분에게 특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기간: 2026년 8월 31일까지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세요!

그린피스와 친구를 맺어주세요!

그린피스를 카카오톡 채널 친구에 추가해 보세요. 그린피스 챗봇 '그린이'를 통해 다양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시거나, QR 코드를 통해 그린피스와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맺어 주세요.

☎ 02-3144-1997

✉ help.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www.youtube.com/@greenpeacekorea

🗣 카카오톡 검색창에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를 검색하세요!



이 제재물의 표지는 FSC® 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인크로 인쇄되었습니다.

The Impact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
2025 연차보고서

2025 Annual Report

COVER STORY

오스트리아 스투바이 빙하에서 미세플라스틱 조사

그린피스는 오스트리아의 할슈타트, 키츠슈타인호른, 파스테르체, 솔라텐키스, 스투바이 등 총 5개 빙하를 찾아가 녹은 물에서 미세플라스틱을 검사했습니다. 분석 결과, 모든 빙하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으며 일부는 매우 특수한 종류로 드러났습니다.

CONTENTS

- 02 2025 하이라이트
- 04 인사말
- 06 캠페인 성과
- 20 그린피스 사람들
- 22 캠페인 로드맵
- 24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우 04322)
 ☎ help.kr@greenpeace.org
 ☎ +82 (2) 3144 1997

홍콩

Units 2202B-2205, Port 33, 33 Tseuk Luk Street,
 San Po Kong, Kowloon, Hong Kong
 ☎ enquiry.hk@greenpeace.org
 ☎ +852 2854 8300

베이징

Liangdian Creatie Park Room 201,
 Dongshishitiao 94, Dongcheng District,
 Beijing, China 100007
 ☎ greenpeace.cn@greenpeace.org
 ☎ +86 (0)10 6554 6931

타이베이

11F., No. 365, Fuxing N. Rd., Songshan Dist.,
 Taipei City 105401, Taiwan (R.O.C.)
 ☎ inquiry.tw@greenpeace.org

일본

Tsao Hibiya 12F, 3-3-13 Shinbashi, Minato-ku,
 Tokyo 105-0004, Japan
 ☎ +81(3) 5338 9800

2025 연차 보고서 통권 12호

발행일 2026년 6월 22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화 02-3144-1997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디자인수다

함께 지키는
우리의 지구

GREENPEACE



우리의 지구, 함께 지키는 시민의 힘

기후 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해양 파괴는 더 이상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 300만 명의 후원자님 덕분에 우리는 이 위기를 변화의 기회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기 위한 여정에 두려움 없이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 한국·일본·중국을 포함한 60개국 이 비준한 '글로벌 해양 조약'이 공식 발효
- ✓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 75% 감축 요구
- ✓ 2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원주민 영토 보호
- ✓ 토털 에너지의 그린워싱에 제동
- ✓ 학교의 기후적응 정책 시작
- ✓ 라자 암팻 군도 산호초 보호
- ✓ 시민들과 함께 용인 반도체 산단 LNG 발전소 건설 취소 소송
- ✓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각국의 기후 책임을 한층 분명히 하는 자문 의견을 발표

글로벌

해양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

전 세계 해양의 60%를 차지하는 공해는 남획과 개발의 위협에 놓여 있지만, 보호 구역은 단 1%에 불과합니다.

20년에 걸친 그린피스의 캠페인 끝에, 한국·일본·중국을 포함한 60개국이 비준하면서 '글로벌 해양 조약'이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로써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최초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겠다는 '30x30' 목표에도 속도가 붙게 되었습니다.



© Alonso Garibay / Greenpeace

글로벌

플라스틱 문제의 초점을 바꾸다

플라스틱은 환경뿐 아니라 인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린피스의 조사에 따르면, 11개국에서 약 5,100만 명이 석유화학 시설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며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90개국 이상이 플라스틱 감축에 동의하도록 이끌며, 문제 해결의 초점을 '생산 감축'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75% 감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Greenpeace

프랑스

그린워싱에 제동을 건 프랑스

프랑스 법원이 글로벌 에너지기업 '토털 에너지'의 탄소중립 광고가 허위 광고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겉으로는 친환경 기업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화석연료 사업을 계속 확대해 온 점이 문제로 지적된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2022년 현지 환경 단체들과 힘을 합쳐 토털 에너지의 그린워싱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광고를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기업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이 실제보다 친환경인 것처럼 꾸미는 '그린워싱'에 제동을 건 사례로, 앞으로 비슷한 문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Basile Barjon / Greenpeace



브라질

원주민의 영토를 지키다

세계 최대 육류 기업 중 하나인 JBS를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빼앗은 원주민 토지에서 사육된 가축이 국제 시장으로 유통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OP30이 열린 벨렘에서, 전 세계 60만 명이 동참해 '산림 파괴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국제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90개국 이상이 벨렘 선언에 서명하며 240만 헥타르에 달하는 원주민 영토 보호를 이끌어냈습니다.



© Valdemir Cunha / Greenpeace

한국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민의 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시민 소송단 450명과 함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LNG 발전소들이 인근 주민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허가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제안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용인 LNG 발전소 건설 문제와 재생에너지 관련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대런 아세모글루 교수를 초청해 국회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내며, AI 혁신과 탄소중립 목표가 충돌하는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



© Greenpeace

인도네시아

'마지막 낙원'을 지켜내다

인도네시아 라자 암팻 군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생물다양성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니켈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흙이 바다로 쓸려 들어가며 산호초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는 현장 조사와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 사실을 밝혀냈고, 그 결과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당 지역의 니켈 채굴 허가 4건을 취소했습니다.



© Nita / Greenpeace

일본

학교 기후적응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다

일본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린피스는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학교 현장에서 직접 온도를 측정하고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극한의 더위 속에서 에어컨만으로는 건물 구조의 한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활동은 결국 요코하마시가 지역 내 초·중학교 480곳 전체에 단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는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에어컨 설치와 단열 개선은 함께 가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 기준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례는 일본 각지의 지방정부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도시의 기후적응 정책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방향을 보여주는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 Greenpeace



글로벌

세계 최고 법원, 기후 책임을 분명히 하다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받는 태평양 섬나라 출신 법학도들이 6년간의 캠페인을 펼친 끝에,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각국의 기후 책임을 한층 분명히 하는 자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국가가 환경 피해를 막을 의무가 있으며, 기업의 배출로 생긴 피해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기본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에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사회가 정의를 요구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니다. 그린피스는 해당 지역에서 수집한 증거와 연구 자료를 제공해, 기후 취약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이번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습니다.



© Greenpeace



GREENPEACE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자연과 마음을 잇는 대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의 새로운 후원총괄이사 루디빈 우데와 썬이팽청 사무총장이 그린피스에 함께하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계획, 그린피스 활동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인상, 낯선 곳이 집으로 변하는 과정

썬이팽청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국제 구호 현장의 최전선에서 많은 상처를 겪은 지역들을 다니며 활동해 오셨는데요. 동아시아에 오신 소감이 궁금해요. 첫인상은 어땠고, 이곳에는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가요?

루디빈 타이베이에 도착한 날, 비가 정말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동아시아로 이주하는 건 꽤 큰 변화였어요. 우리 팀은 정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처음에는 새롭고 낯설기도 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국적과 관계없이 다들 등산과 하이킹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친근해졌고, 덕분에 조금씩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프랑스어에는 '테루아(Terroir)'라는 참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요. 보통 음식이나 와인을 이야기할 때 쓰이지만, 사실은 어떤 장소가 가진 고유한 분위기와 정체성을 뜻해요. 그 땅과 기후,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특별한 감각 같은 거죠.

썬이팽청 테루아라는 표현이 정말 아름답네요. 보통 '살기 좋다'고 하면 급여나 의료, 정치 같은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곳을 진짜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은 바로 땅이나 기후, 풍부한 생물

다양성, 깨끗한 물, 건강한 바다 같은 것이죠.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지구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터전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여정

루디빈 앞으로 3개년 계획을 보면, '연결'이라는 단어가 자주 떠올라요. 구호 활동을 하면서 전쟁이 남긴 상처에서 힘겹게 버티는 난민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직면한 극단적인 이상 기후나 해수면 상승, 그에 따른 기후 난민까지 문제는 매우 크지만, 저는 동아시아가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느낍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드는 변화는 단순히 우리 삶의 터전을 살기 좋게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썬이팽청 2025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극심한 폭염에 대응하고, 기후재난 피해자들을 돕고, 세금 정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죠. 아직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많지만, (그리고 과학자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가끔은 우리가 이뤄온 성과들을 되새기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재생 에너지만 해도,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했죠. 이전 전 세계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함께 지키는 우리의 미래

썬이팽청 환경 운동의 본질은 사람과 자연의 연결에 있습니다. 그린피스가 앞으로 3년간 펼칠 캠페인은 우리의 바다를 지키고, 기후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2026년 글로벌 해양조약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면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를 보호하자는 30x30 목표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됐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시의 급격한 성장이 동아시아의 물과 전력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AI 산업이 단순히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전환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정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루디빈, 그린피스의 새로운 일원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또 우리 후원자님들이 진정한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으신가요?

루디빈 그린피스는 오랫동안 동아시아에서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글로벌 단체의 장점인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탄탄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조사하고 기록하며 더 나은 정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중심에 서도록 할 것이고요. 모든 후원자님 한 분 한 분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생각에 정말 설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만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썬이팽청 우리가 물려받은 이 지구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책임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남길 것인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과 지구, 조화의 삶

자연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나 데이터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과 산, 바다는 오랜 시간 모든 생명과 함께 공존해온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은 결국 지구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자, 다음 세대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지구가 마주한 문제는, 전문가들의 논의와 숫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도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의 아낌 없는 후원 덕분에 생태계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변함없이 그린피스가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걸어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후위기 시대, 사람과 지구 곁을 지키다

기후위기 앞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흔들리는 지구.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희망으로 사람과 지구 곁을 지키는 일, 그린피스는 그 여정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한국 역사상

역대 최악의 산불의 현장을 가다

2025년 3월 말 영남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직후, 그린피스 기후재난 대응팀은 산불 현장에서 현장 긴급 대응 단체들과 함께 산불 발생 추이 및 피해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긴급 대응을 시작으로 영덕 지역에서 이재민들의 피해 현황을 조사하는 설문조사, 지품초등학교 어린이 회복 프로그램, 이재민 대상 기후재난 강연과 공동체 회복 워크숍 등을 이어가며 기후재난 현장에서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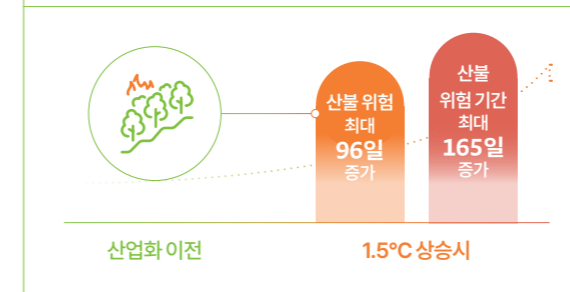
© Jung-geun Augustine Park / Greenpeace

기후위기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 일수 증가 보고서 발표

카이스트 메타어스 연구진과 함께 산업화 이전보다 산불 위험 일수 및 기간이 120일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의 근본 원인에 기후위기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요 방송 뉴스와 지면 매체에 노출하며 산불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기후위기 관점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 일수 증가 그래프



기후재난 현장 긴급 대응 및

지자체 협력

영남 산불 외에도 충남 예산 수해, 강원 강릉 가뭄 등 다양한 기후재난 현장에서 긴급 대응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지역사회 협력을 인정받아 지자체로부터 감사장을 받았으며, 이는 기후재난 대응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입니다.

유럽

과학과 예술로 알린 화석 연료의 위험성

그린피스 '아틱 선라이즈'호는 유럽 바다를 향해하며 노르드스트림 가스관 주변을 현장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가 해양 생태계에 입히는 피해를 과학적 데이터로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세계적인 작가 아니쉬 카푸어와 협력해, 북해 가스 플랫폼에 대형 예술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과학적 증거와 예술적 행동을 결합한 이 활동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 저탄소 미래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Greenpeace

그린아젠다빌더스 출범,

나의 일상이 정책으로!

그린 리더 육성 프로그램, '그린 아젠다 빌더스' 1차 캠프에 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도넛경제학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약 60개의 정책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2026 서울시 장 출마자들과 정당들에 정책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나의 세금과 기후위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세금과 관련한 사회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금이 화석연료 보조금 등으로 사용되면서 일상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아티스트와 협업해 알렸고, 매우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 Andrew McConnell / Greenpeace

© Greenpeace



LNG 발전소 건설 저지

시민 소송인단

LNG 발전소 건설을 막기 위한 법적 대응 및 공론화를 위해 450명의 시민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시민소송인단과 함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사업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통해 건설 허가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

발족

기후위기와 LNG 발전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 그룹 '새로고침 네트워크'를 발족했습니다. 9월 기후정의행진 버스 운영 및 거리 행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시민 연대를 강화하고, LNG 발전소 피해 지역 기록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

〈인공지능 시대의 그림자〉보고서 발간을 통해 AI칩의 주요 생산 거점인 동아시아가 AI칩 제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반도체 산업의 탈탄소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Yeo-sun Park / Greenpeace

'기후위기와 교통'

웹툰 시리즈

'하이브리드차의 친환경성', '전기차 운전의 이점', '지속 가능한 이동과 대중교통'을 주제로 인스타그램 웹툰을 제작했습니다. 웹툰 작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기후위기와 교통의 연관성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여 지속가능한 이동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였습니다.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 연구 및

전기차 대중화 정책 활동

정부의 내연기관차 지원 정책이 전기차 전환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보고서 <전기차 전환,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발행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연평균 8조 3천억 원이 내연기관차 지원에 투입되는 현실을 짚고, 해당 재정을 전기차 전환에 재배치할 때 추가 예산 부담 없이도 전기차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속화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운전자

인터뷰 영상 제작

8년차 전기차 운전자인 자동차 전문 크리에이터와 함께 전기차의 실제 장점, 산업 트렌드, 필요한 정책 변화를 다룬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전기차에 관심 있는 대중에게 신뢰도 높은 실사용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전기차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베이징 AI 산업의 탄소배출 경고등을 켜다

그린피스는 세계 최초로 AI반도체 제조 시 발생하는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AI 칩 제조 전력 수요는 2023년 대비 약 170배 폭증하여, 국가 하나의 전력 사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탐사 보도 영상 'AI의 어두운 면'으로 160만 명의 시청자에게 이 위험성을 알렸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AI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위기를 넘어 변화로

당초 2024년 협상 종료를 목표로 했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결론을 맺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더욱 강력하게 한국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에 생산 감축을 포함한 협약 지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오염 유발자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음에도 변화에 나서지 않는 음료 기업에 책임을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UNEP 세계환경의날, 미세플라스틱 오염 실태조사

2025년 'UNEP 세계환경의날'에 맞춰, 그린피스는 연대체와 함께 제주 해변을 가득 메운 미세플라스틱을 조사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과 포럼을 개최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생산 감축을 포함한 강력한 협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협상

현장 참여

2024년 부산에서 협상 종료를 목표로 했던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되지 못하고, 202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협상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연대체와 함께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정부에 강력한 협약을 위한 행동을 요구하며 액션과 언론 홍보 활동, 비공식 간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협상 과정을 협상장 안팎에서 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협약 성안부터 체결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각 나라 정부에 진정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요구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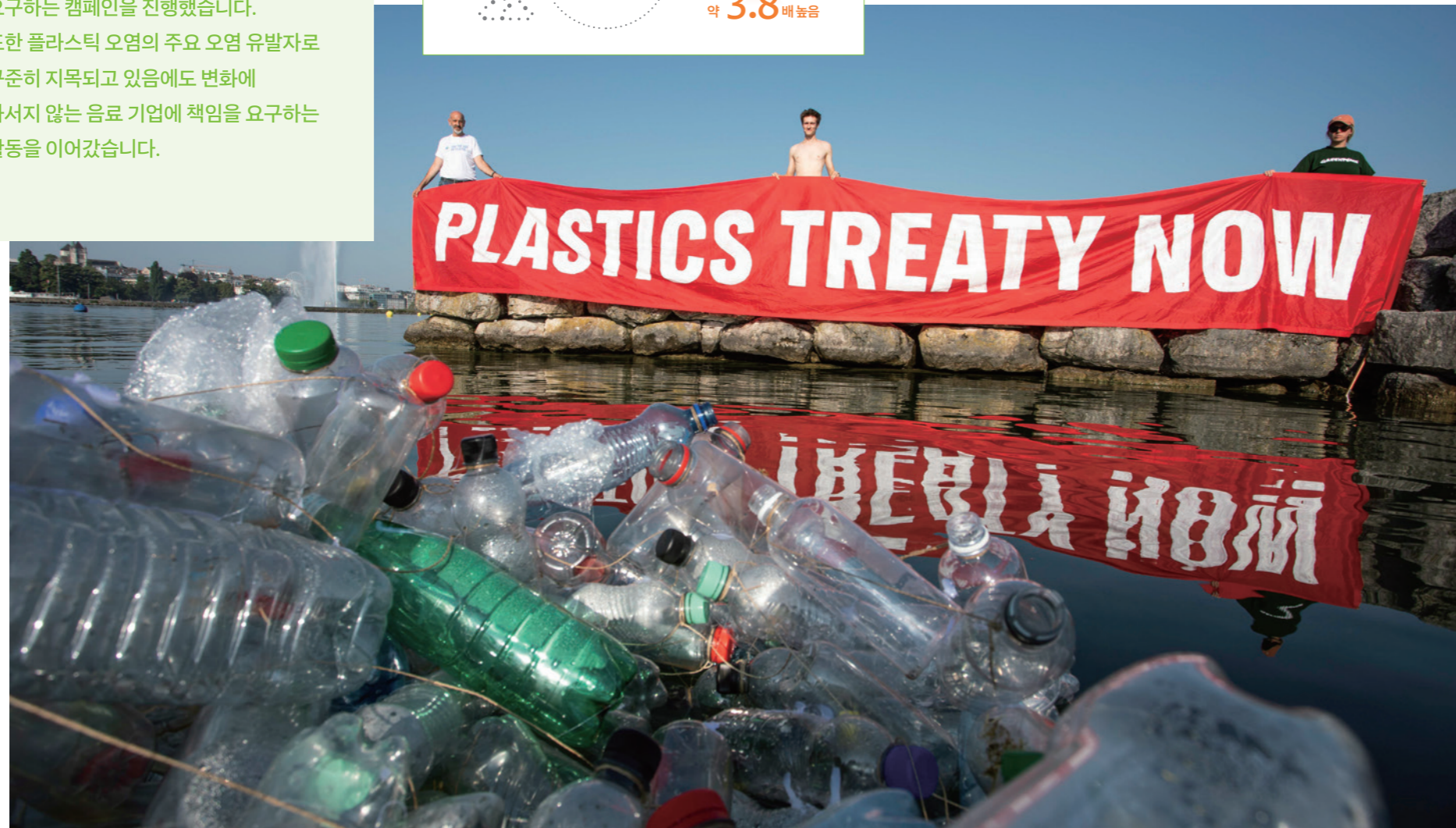
2025 플록조사:

플라스틱이 삼킨 교실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서는 일회용에서 다회용 시스템으로의 포장재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린피스는 기후행동교사모임 내 9개 학교 137명의 어린이와 청소년과 함께 플록 조사(일회용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주요 음료 기업에 아이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변화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 Greenpeace



© Jack Taylor Gotch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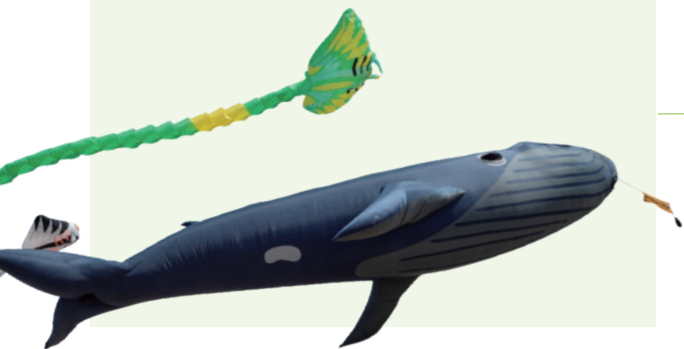
홍콩

“관객은 안 되고, VIP는 된다?” 공연장의 수상한 규칙

스포츠 경기와 대형 콘서트가 열리는 홍콩 카이탁 스포츠 파크(KTSP)에서 현장 조사와 폐기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반 관객은 보안상의 이유로 다회용 텀블러 반입이 금지되었고, VIP석에는 플라스틱 생수가 제공되는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으로 홍콩 카이탁 스포츠 파크는 이후 열린 콘서트부터 물병 반입 금지 규정을 완화하여, 관객들이 개인 물병을 지참하고 입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글로벌 해양조약, 드디어 현실로!

건강한 바다는 건강한 지구를 만듭니다. 더 이상의 파괴를 막고 바다가 건강한 생태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해양보호구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드디어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되기까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2월 BBNJ 비준 촉구 국회 기자회견 및 부처 논의



© Yeo-sun Park / Greenpeace

시민사회 연대체와 함께 국회에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한 외교부 및 관련 의원실과 만나, 공해 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과 조약발효의 시급성을 전달했습니다.

3월 한국 정부, 동아시아 최초로 BBNJ 비준 동참

서울사무소는 한국 정부가 제3차 유엔해양 총회를 앞두고 조약을 비준하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들과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3월 동아시아 최초이자 유엔 회원국 중 21번째로 비준에 동참했습니다.

4월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 시민참여 활동

부산에서 열린 제10차 아워오션컨퍼런스(OOC)를 계기로,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600여 명의 시민과 함께 해양 다큐멘터리 <씨그널(SEAGNAL)>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상영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각국 정부의 조속한 BBNJ 비준을 촉구했고, 20여 개 해양 시민사회 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7월 심해 채굴 반대 활동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 맞춰, 한국 정부를 포함한 회원국들에 심해 채굴 중단과 심해 생태계 보호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디지털 캠페인을 통해 심해 생물과 생태계의 가치를 알리고, 심해 채굴이 가져올 위험성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8월~9월 전국에서 이어진 <씨그널> 상영회

3,000여 명의 시민들의 후원으로 제작된 해양보호 다큐멘터리 <씨그널 SEAGNAL: 바다의 마지막 신호> 상영회를 전국 각지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3월에는 국회의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 시사회를 열었으며, 이후 전국으로 확대해 대전·대구·광주에서 후원자들과 함께 상영회를 이어갔습니다.

9월 2026년 1월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국 60개국 달성 글로벌 해양조약 발효!

2026년,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가 황제해산 등 공해 우선 보호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공해 보호를 확대하는 데 앞장설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것입니다.



타이베이

과학적 증거로 드러난 남획과 인권 문제, 제도 변화를 이끌다

대만은 세계 2위 원양어업 국가이지만, IUU 어업과 이주 선원 인권침해 문제로 국제적 비판을 받아왔고 해양보호구역도 8%에 그쳐 '30x30' 목표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의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해양 생태계를 회복시키려는 글로벌 캠페인

그린피스는 수중 조사와 AIS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남획과 산호초 쇠퇴의 연관성을 밝히고, 해양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를 통해 불법 상어 포획 증거를 기록하는 등 보호구역의 관리 부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또한 기업 인권 실사 의무화를 촉구 하고, 불법 어업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남획을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관리 실패 문제로

드러내며 더 강력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원양어업 인권 문제가 국가 경제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임을 알리고, 선택 사항이던 인권 보호를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로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 Greenpeace



© Green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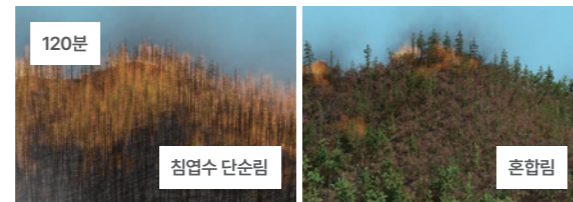
숲과 생명을 되살리는 변화

생물다양성 캠페인은 한국의 법·제도 체계를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에는 보호지역 내 개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시민들이 생물다양성과 자연복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 기반 활동을 확대했습니다.

주왕산 산불

시뮬레이션

2025년 대형 산불 이후 주왕산 국립공원 일대의 산불 피해를 조사하고, 폴란드 연구진과 협력해 산불 시뮬레이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침엽수만 있는 숲과 다양한 나무가 섞인 자연 혼합림의 피해 양상을 비교한 결과, 여러 수종이 함께 자라는 숲이 산불 피해에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산불 복구 정책이 자연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천이'와 혼합림 중심 복원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불특별법 대응

연대 활동

산불피해구제특별법이 보호지역과 산림의 대규모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린피스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했습니다. 환경단체와 법률가들은 피해자 지원과 생태계 보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5년 5월과 8월 두 차례 국회 토론회를 기획해 주요 환경단체들의 생물다양성 정책에 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생물다양성 기본법의 한계를 짚어보고 생물다양성위원회 설치,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의무화, 보호지역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지역 확대 등 국제 생물다양성 목표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물다양성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의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고운사는 대규모 인공조림 대신 자연복원을 선택했습니다. 생물다양성팀은 안동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생명다양성재단,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사찰림에서 식생, 동물, 곤충, 생물 음향 등을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산불 이후 생태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이 스스로 숲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다른 산불 피해 지역의 복원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글로벌

아마존 불법 채굴의 고리 끊기



© Jumsajanto Sukarno / Greenpeace

아마존 열대우림을 파괴하고 있는 불법 금 채굴의 핵심 장비는 대형 굴착기입니다. 그린피스와 선주민들이 힘을 합쳐 캠페인을 펼친 결과, 브라질 정부는 채굴에 사용되는 굴착기를 국가등록 시스템으로 관리·추적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법 채굴 장비의 이동과 사용을 감시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를 만든 중요한 변화입니다. 2023년 HD현대의 아마존 굴착기 판매 중단에 이어 시민 행동과 현장 조사가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홍콩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

샤프 아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트레킹, 스노클링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관광 산업으로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어, 그린피스는 현장 조사를 통해 산호초 훼손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학계와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해 정부의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홍콩행정장관은 보호 조치 강화를 약속했고, 홍콩의 농수산보존부는 생태 수용력을 조사하고 관광객 예약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이 회복 가능한 수준의 사람·활동의 최대치



© Greenpeace



© Greenpeace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환경 캠페인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재난 현장에서 회복을 돕고 정책을 변화시키고 소송의 주체로 나서는 '능동적인 변화의 주체'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 Sungwoo Lee / Greenpeace

시민대응단 이야기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3기
문유빈 님

한 분이 해주신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고사리 농사를 짓는 분이셨고, 아내분이 몸이 안 좋으셔서 산불 피해가 났을 때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사리가 다 타버렸지만, 뿌리가 남아 있어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뿌리만 남아 있으면 다시 자랄 수 있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이재민 분을 보는데 그게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재난 이후의 희망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활동이 끝나고도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제가 시민대응단 활동을 하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참여한 활동이었는데, 오히려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좋은 뜻을 가지고 모인 시민대응단 단원들과 만나서 기후 재난과 회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에너지도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기후재난 시민대응단

4월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청송을 찾아 배식 봉사를 진행하고, 피해 마을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9월에는 150명의 지원자 중 선발된 35명의 시민대응단 3기가 경남 산청 지역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1박 2일간 복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대응단은 피해 지역의 회복을 돕고, 주민들의 증언을 기록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 Greenpeace



지품초등학교 회복 프로젝트

산불 피해 지역인 지품 초등학교 어린이 15명과 함께 회복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직접 참여한 음원 '우리, 함께, 다시'를 제작했습니다. BTS 정규 앨범 작사에 참여하고, 어린이 프로그램 <뽀뽀뽀>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해 온 안복진 감독과 함께 아이들의 마음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살아나는 숲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가사로 써 노래를 직접 녹음했습니다. 아이들이 녹음한 노래 '우리, 함께, 다시'는 멜론, 벅스, 유튜브 등 음원 사이트에 공개되었으며 수익 전액은 그린피스에 기부됩니다.



© Greenpeace

시민들이 직접 바꾸는 환경 정책

시민들이 직접 시스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새로고침 네트워크는 시민들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LNG 발전소 건설 반대 소송 원고 및 시민 4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변론기일 참관, 기록 전문가 교육, 증언 수집 등 시민이 소송의 주체로 참여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린 아젠다 빌더스는 지역 기반의 정책을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프로젝트로, 시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생활에 밀접한 환경 정책을 고안했습니다. 이 정책은 올해 3월 기후환경 정책 제안서로 완성되어 서울시장 후보 및 정당들에 전달했습니다.

© Jung-geun Augustine Park / Greenpeace



위어스 WEarth: 지구의 목소리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울과 부천에서 '위어스 WEarth'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위어스 이벤트는 캠페이너들이 시민들에게 기후위기가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녹음 부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지구에 전하는 메시지를 녹음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추후 지구의 목소리로 만들어져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더 많은 지역 공동체와 연대하고 시민들의 주체적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긍정적인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다의 목소리를 전하는 사람

이유정 해녀

“바다를 단순히 아름다운 곳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할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피스 후원자이자 제주의 이호테우 해변에서 물질하고 있는 6년차 아기 해녀 이유정입니다.

해녀로서 느끼는 어려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처음엔 21명이었는데, 지금은 열 두 분만 남아 많이 아쉽고 외롭습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예요. 제주 바다 수온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 여름에는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덥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더 힘들어하세요.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파란 꽃게나 낚선 물고기들이 보일 때마다 바다가 많이 변했다는 걸 실감합니다.

페어구도 큰 위험입니다. 물고기뿐 아니라 해녀가 걸려 사고가 나기도 해요. 물속에서는 소리를 낼 수 없어서 더 위험하기 때문에 늘 주변을 살피게 되죠.

저에게 바다는 ‘회사’예요. 여기서 돈도 벌고 생활도 해요.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온 쓰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제 회사니까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웃음) 바다는 제 일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힘들 때마다 마음을 쉬게 해주는 소중한 곳이기도 해요.

사실 바다와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도 바다에서 오니까요. 바다를 단순히 아름다운 곳으로만 보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할 곳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찾았어요

윤영우 봉사자

“그린피스 자원봉사 활동이 좋은 점은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때 처음 그린뉴딜 시민행동에 참여하면서 그린피스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았는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희망의 가능성을 보고,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됐어요.

위어스 행사에는 시민들과 직접 만나고, 기후위기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게 됐어요. 날이 많이 더워서, 이런 날 많이 오실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오셔서 놀랐어요. 또 어린 세대가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양한 세대의 분들이 함께 오셨더라고요.

그린피스 자원봉사 활동의 좋은 점은 저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사실 일상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는 채식 레스토랑 정보도 공유하고 정말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행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벌을 통해 세상을 배우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양봉 동아리 2학년 이예인, 오승연 학생

“예전에는 벌을 단순히 사람을 쓰는 곤충으로만 생각했지만, 벌을 직접 기르고 연구하면서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됐어요.”



그린피스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하늘고등학교 양봉 동아리가 2025년에도 직접 생산한 꿀 판매 수익금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양봉 동아리는 높은 경쟁률을 자랑할 만큼 학생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오승연 학생은 입학설명회에서 기부로까지 이어지는 활동을 보고 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느껴 지원했다고 말합니다. 이예인 학생은 중학교 시절부터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져왔고, ‘꿀벌이 지표종이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연구하면 기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동아리를 선택했습니다.

실제 활동은 기대와는 다른 면도 있었습니다. 이예인 학생은 “달콤한 꿀만 떠올렸지만, 벌의 생존을 살피고 개체 수 변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알게 됐다”고 전합니다. 벌에 쓰이거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명의 무게를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오승연 학생 역시 “예전에는 벌을 단순히 사람을 쓰는 곤충으로만 생각했지만, 직접 기르고 연구하면서 생태계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게 됐다”며, 큰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학생들이 수익금의 기부처로 그린피스를 선택한 이유는 독립성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만든 소중한 수익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바랐고, 벌과 생물다양성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접한 다양한 활동 역시 선택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환경과 기후를 지키는 일이 꿀벌을 지키는 일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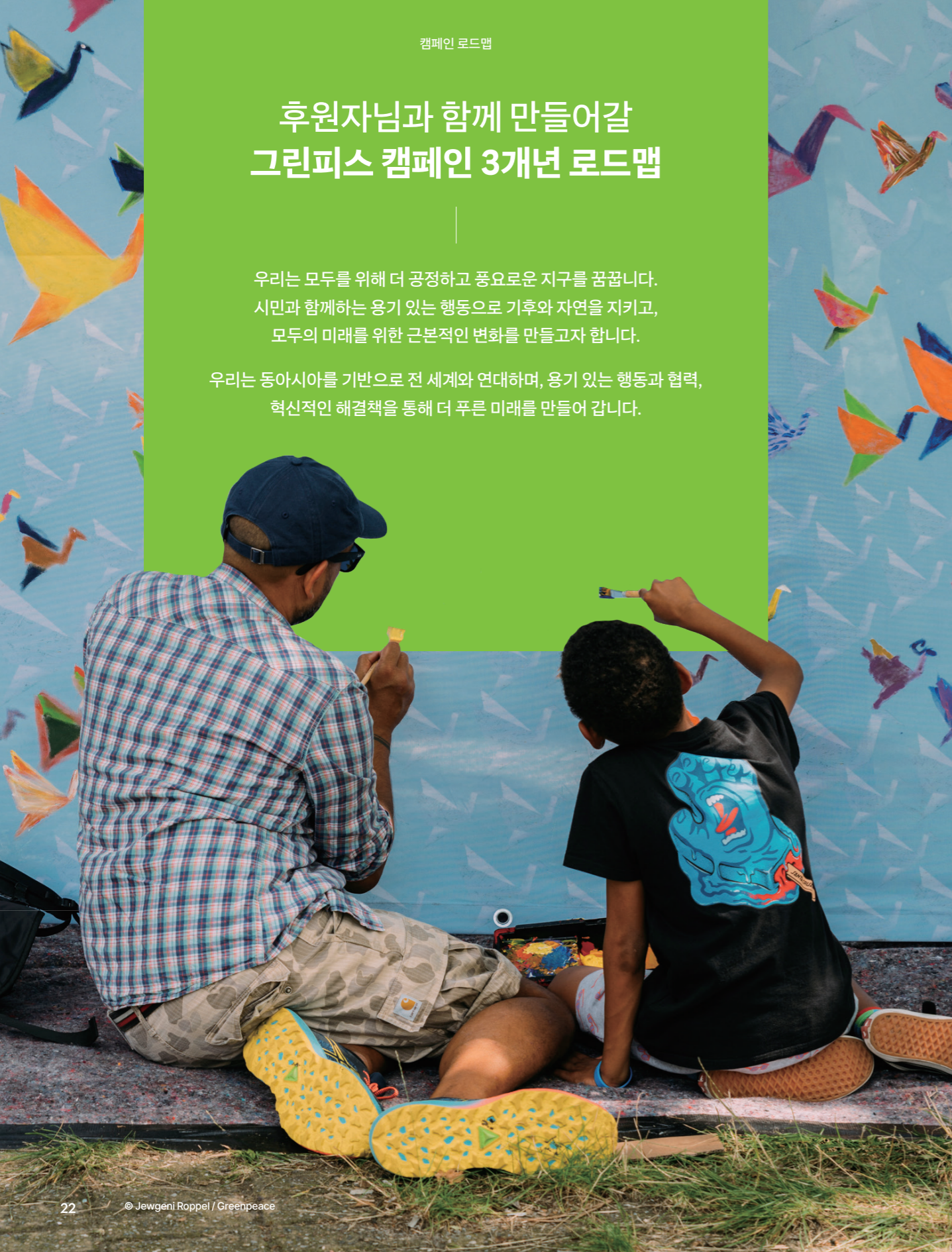
작은 생명인 꿀벌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이해하고, 배움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하늘고 양봉 동아리. 소중한 나눔을 이어가 주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들의 의미 있는 도전과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후원자님과 함께 만들어갈 그린피스 캠페인 3개년 로드맵

우리는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풍요로운 지구를 꿈꿉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후와 자연을 지키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동아시아를 기반으로 전 세계와 연대하며, 용기 있는 행동과 협력,
혁신적인 해결책을 통해 더 푸른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동아시아 지부 공통 방향과 전략

각 사무소마다 목표와 전략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함께 지향하는 방향이 있으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공통 방향



신뢰와 파트너십 강화

대중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협력 파트너와의 연대를 강화합니다.



핵심 산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동아시아와 글로벌 차원에서
영향력이 큰 기업과 산업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기후와 생물다양성의 통합적 접근

생물다양성을 기후 대응의 핵심 요소로 보고,
두 영역을 함께 아우르는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협력으로 만드는 더 큰 변화



리더십-국제 협력 주도

각국 정부가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끕니다.



AI/기술-AI와 반도체 산업의 책임 강화

AI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책임을 요구합니다.



해양-글로벌 해양 캠페인 참여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해양보호 활동을
연결해, 더 큰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글로벌 캠페인에 기여합니다.

서울사무소의 3개년 목표

더 조화롭고 능동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새로운 캠페인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실험해 나갑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습니다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의존,
기후 대응 부족, 환경 파괴 관행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변화를 만듭니다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를 실제 환경
성과로 이어지도록 캠페인을 펼칩니다.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정부의 환경 정책은 물론,
지역 정부까지 정책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변화를 만드는 방식



강력한 연대를 구축합니다

시민, 지역사회, 노동조합, 사회 정의 운동과
함께 폭넓은 협력 구조를 만듭니다.



담론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후 문제를 단순한 기술적 해결이 아닌,
책임과 정의의 문제로 전환합니다.



내부 협력을 강화합니다

모든 팀이 긴밀히 협력해
전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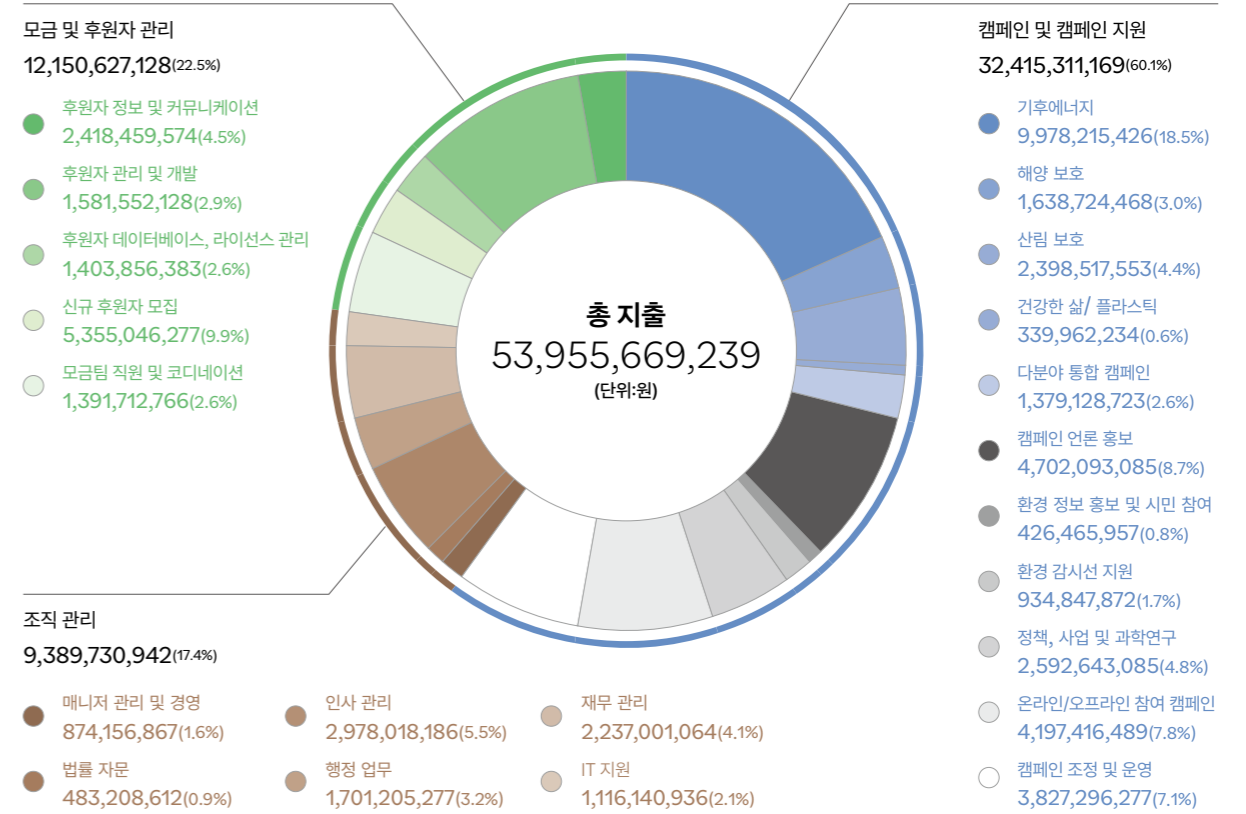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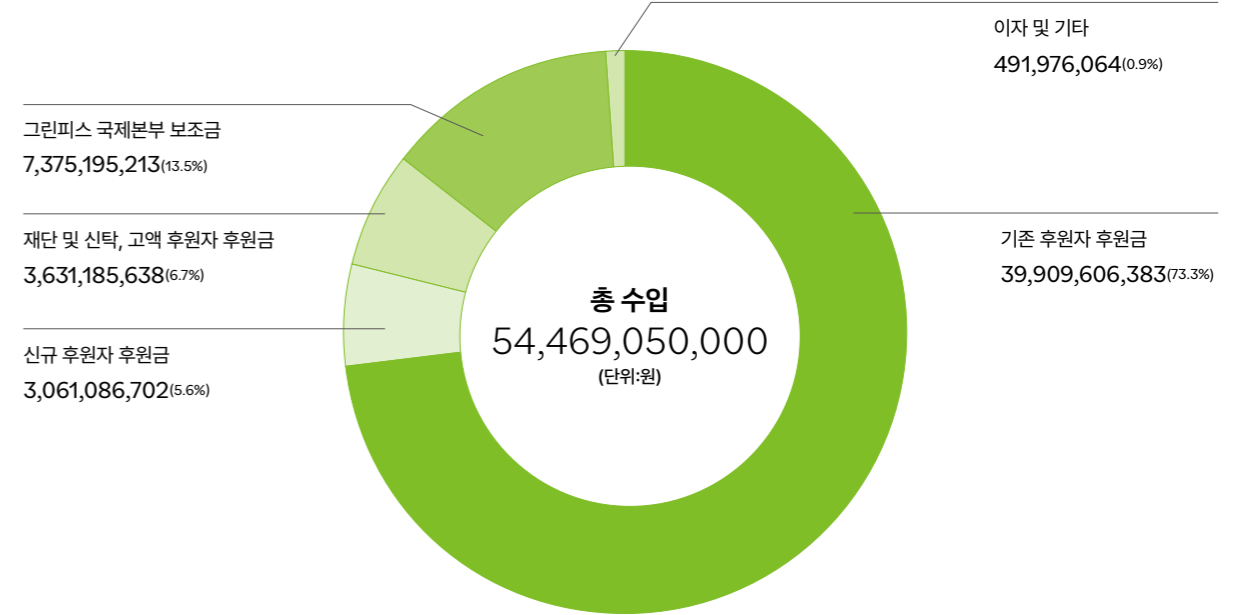
자연을 위한 하나의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린피스는 오직 개인 후원자님과 독립 재단의 후원만으로 활동하는 독립 환경단체입니다. 처음 활동을 시작한 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린피스의 핵심 가치입니다. 후원자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후원금 사용 내역 보고에서 확인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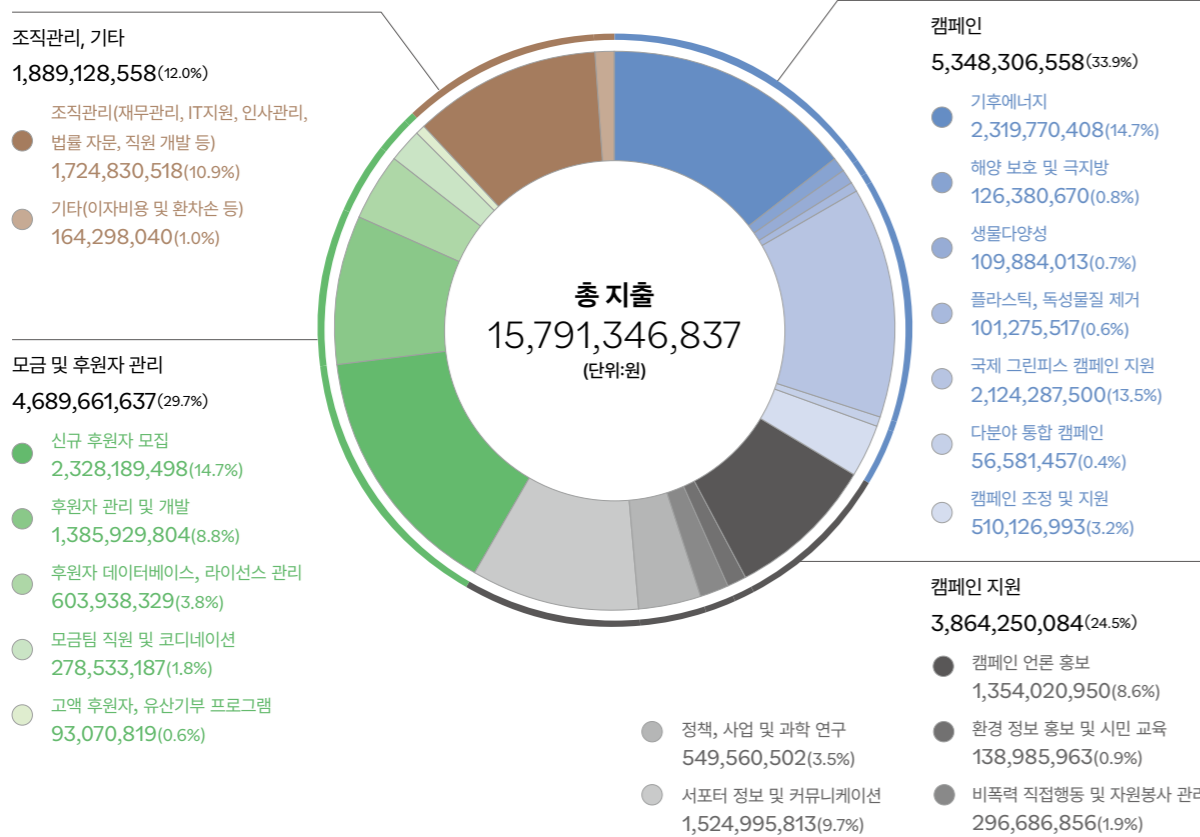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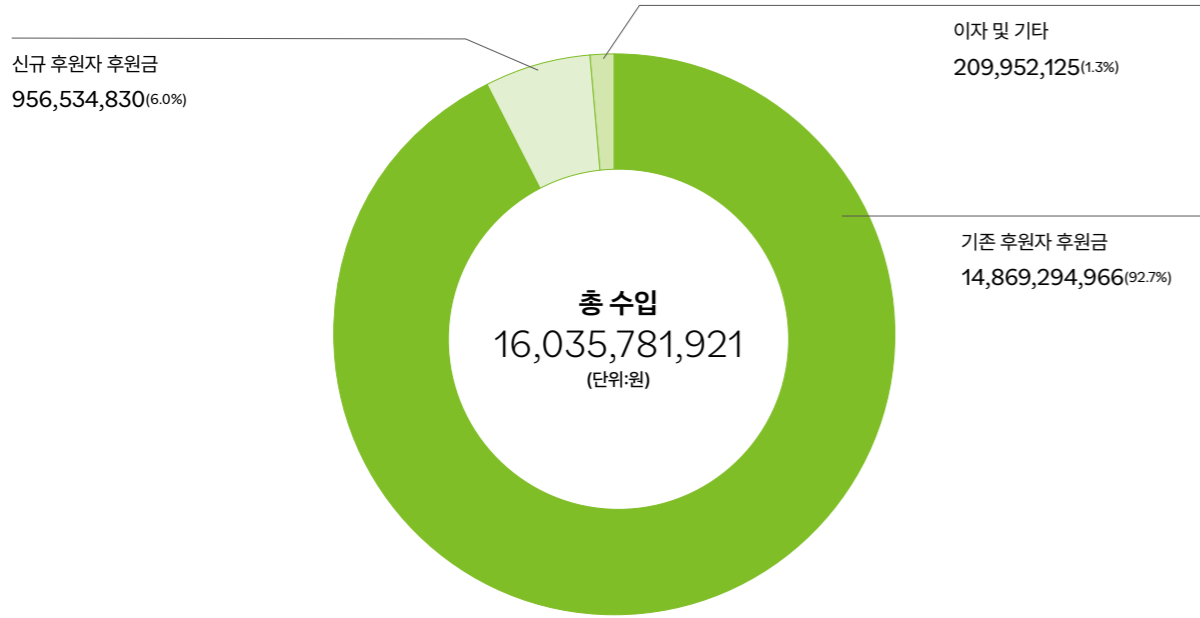
3만 원의 후원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31%(9,235원)	
해양보호 5%(1,517원)	
산림 보호 7%(2,220원)	
플라스틱 / 건강한 삶 1%(315원)	
다분야 통합 캠페인 4%(1,276원)	
캠페인 미디어 및 대중 홍보 16%(4,746원)	
지역사회 교육, 비폭력 직접행동, 자원봉사 16%(4,750원)	
정책, 비즈니스 및 과학 연구 20%(5,941원)	

2025 동아시아 지부 수입 및 지출 내역



2025 서울사무소 수입 및 지출 내역



고마운 자연에 오래오래 남기는 당신의 사랑, 유산기부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환경 파괴로 동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마음 아팠어요. 그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오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으면서 공수래공수거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어차피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기왕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 기부하자는 생각이 들었죠.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유산기부 박선화 후원자님



Q. 유언장은 왜 필요할까요?

A. 유언장이 있으면 법정상속인을 넘어, 원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만으로도 소송이나 가족들의 감정적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재산은 민법이 정한 순위대로 분배되며, 본인의 뜻과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를 반영하는 곳에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는 유언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Q. 재산의 일부만 기부해도 되나요?

A. 물론입니다. 원하시는 만큼만, 또는 특정 자산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배려와 자연을 위한 나눔, 두 가지 모두 균형 있게 찾아드립니다.

Q. 유가족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공익법인에 기부하신 재산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담을 통해 정확한 혜택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나요?

A. 네,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